



〈6부〉 수산업, 지금이 기회다

① 수산 1번지 전남

# 국내 수산물 41%가 전남産...해조류 전국 85% 점유



전남은 천일염 등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해양수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 활용 여부에 따라 경제적 부를 창출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천일염은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1세기는 바다에 미래가 있다고 한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의 부(富)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전남을 '농도(農道)'라고 하지만 전남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전국 제일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하드웨어면에서 본다면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바다와 인연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 섬의 65%인 2219개의 섬이 전남에 산재해있고 해안선 길이도 6475km로 전국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은 1037km로 전국의 42%에 해당한다.

어민 3명 가운데 1명꼴인 5만2969명(2만1804 가구)의 어민이 전남 사람이다. 92%가 50 미만일 정도로 규모면에서는 영세하지만 전국의 42%인 3만2103척(9만4058t)이 전남에 있고 양식장 등 어장도 해수면의 60%와 내수면의 35%가 전남에 형성돼 있다.

소프트웨어측면에서도 절대 비교우위의 풍부한 수산물을 자랑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113만t으로 전국의 41%에 이르고 특히 해조류는 전국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1위의 수출품인 김은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웰빙식품으로 뜨고 있는 매생이는 장

## 전북 10년새 생산액 25배 급증 역대농 2220가구

## 천일염·김 독보적...7개 품목 FTA에도 '경쟁력'

홍·강진·완도 등 100%가 전남산이다. 전북은 전국의 98%인 6785t이 완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고 굴비(97%), 다시마(94%), 톳(92%), 미역(90%), 천일염(86%) 등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같은 절대적인 비교우위 품목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치열한 시장 개방 상황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전국 1위인 전남 대표 수산물 10개를 선정해 최근 12년간의 통계자료 등을 통해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천일염·전복·김·미역·다시마·참조기·젓갈 등 7개 품목은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일염과 김은 기업형 유통회사 설립 정책 등에 힘입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천일염은 2010년 신안 신의도 주민과 CJ제일제당이 공동으로

'오천년의 신비'를 설립한 이후 생산액이 전년보다 2.3배나 늘었다. 김 역시 단일품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장흥무산김'이 2009년 설립된 이후 2010년부터 생산과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태풍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전북은 '전복(錢福)'으로 불릴 정도로 어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효자 품목이 됐다. 국내 전복산업은 10년 사이 생산액이 25배나 폭증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전남에서만 연간 2500억원이 넘는 부를 창출하고 있다.

전남에서 연간 1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어가는 2220여 가구로 이 가운데 27%인 590가구가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남 전북의 81%를 생산하는 완도에는 국내 굴지의 연구소 출신 젊은이들이 전복양식을 위해 귀여하는가 하면 노화도에는 외제 차만 40여대에 이를 정도다. 전복양식의 호황은 딱

이인 미역과 다시마 수요까지 늘리면서 동반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자원을 바탕으로 '제2차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남을 해양수산 1번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4만5600ha의 양식어장을 추가로 개발하고 수산물 생산량도 2조5000억원 규모의 연간 149만t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 '전남 슈퍼김 1호'처럼 신품종을 개발해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등 종묘 생산기술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파괴력 있는 계획은 양식업 조성사업이다. 바다 한가운데 전복·해삼 등 한 곳당 150~200ha 정도의 대규모 양식섬 3~4곳을 만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데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해 양식업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업은 종묘 생산에서 가공·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게 된다"며 "경쟁력있는 해양수산 자원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 어업인 주식회사

어민이 주주 참여... 6개 회사 운영

장흥무산김 매출 해마다 2배 신장

완도전복 작년 매출 30%가 수출

올 상반기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실적은 7617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김(1055만 달러)과 전복(1713만 달러)의 증가율이 121.0%와 11.7%로 전남의 대표적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출 주력품목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어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어업인 주식회사의 덕이 컸다. 현재 전남에는 장흥무산김, 완도전복, 신안새우젓 등 6개의 어업인 주식회사가 운영중이다. (표 참조)

선두주자인 장흥무산김은 2009년 2월 106명이 주주로 참여해 저온저장시설과 김 가공시설, 친환경 김류기 등 갖추고 기업화에 나선 결과 첫해 3억원이던 매출이 2010년 5억3000만원, 2011년 9억7000만원으로 매년 2배에 가까운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어민과 완도군·완도수협이 공동으로 설립한 완도전복도 매출이 2009년 46억원에서 2011년 150억원, 지난해 220억원으로 눈에 띄게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의 28.6%인 63억원 어치를 일본과 중국 등지의 수출로 이뤄내 어업인 주식회사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전남도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체계화하기 위해 어업인 주식회사를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로 20여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현재 운영중인 6개 외에 영광 꽃게, 여수 홍합, 목포 연근해어업 등도 어업인 설립회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업의 규모화와 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며 "6개 회사의 설립으로 1500여명이 고용되고 10곳의 대형 유통업체에 판로를 뚫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 전남지역 어업인 주식회사 현황

회사	설립일	주주 수	자본금	매출액(2011)
장흥무산김	2009. 2	106명	6억3500만원	9억6600만원
완도전복	2009. 3	1215명	87억4400만원	220억원
신안새우젓	2009. 11	55명	13억9400만원	10억9700만원
여수복색물치	2009. 10	14명	10억7500만원	4억4600만원
신안우럭	2010. 1	39명	13억원	17억원
새고막	2011. 6	87명	14억1400만원	-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